大 韓 工 業 敎 育 學 會 誌
第 38卷 第 2號 pp. 48-67

특성화고 진학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담당자의 인식 비교 연구†

이 병 욱*, 안 재 영**, 이 찬 주***, 이 상 현*

<국문초록>

본 연구는 특성화고 교육의 주요 수요자가 될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담당자의 특성화고 진학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특성화고의 운영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남 아산시의 중학교 3학년생과 학부모 및 산업체 인사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과 학부모는 대체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 교육 기관보다는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였고 고교 선택 요인으로 중학생은 학업 성적을, 학부모는 적성·소질을 가장 고려하였다.

둘째,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는 특성화고의 목적을 학생의 소질·적성 향상 및 취업으로 인식하였고, 특성화고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소질·적성을 일찍 살림, 취업이 잘 됨, 졸업 후 자립이 빠름, 우수한 기술 습득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의 진학, 승진·임금 등에 대한 불이익, 대학 진학에 불리 등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교육이 전공분야 기초·실무 능력 향상, 직업 기초 능력 함양, 창의 인재 육성, 바른 인성 및 태도 함양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다수의 중학생과 학부모가 아산시에 특성화고 설립 시 특성화고 진학 의사를 나타냈고 진학 이유는 적성·소질을 일찍 살림, 우수한 기술 습득, 조기 취업 희망 등, 미진학 이유는 적성·소질에 맞지 않음,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부족, 대학 진학에 불리,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이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과 대학 진학을 비슷하게 희망하였고 취업 이유는 대체로 사회 진출을 빨리하여 성공하고 싶거나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학 이유는 대체로 전공에 대한 심화교육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때문이었다.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가 인식하는 채용 기준으로 직무 수행 능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학생과 학부모는 공업 계열 학과, 가정·가사 및 상업 관련 학과를 주로 희망하고 있으며 학과 선택을 위해 적성·소질, 미래 유망, 취업에 유리함 등을 고려하였다. 산업체 인사의 특성화고 학생의 채용 이유는 학생을 산업체의 인재로 성장, 학생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춤, 고졸 수준의 인력이 필요함 등이었고, 인력이 필요하거나 학생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면 채용할 수 있다는 일부 응답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른 특성화고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도록 학과 및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진로 지도에 입각한 특성화고 입학 시스템을 구축하며 일 기반 현장 학습을 구축하여 학생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실질적인 경력 발달이 가능하도록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정비하고 취업률 등 정량적 평가보다는 특성화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특성화고 관련 기능 인력이 제대로 평가 및 대우받을 수 있는 각 부처의 협력적 지원이 요구된다.

주제어 : 특성화고등학교,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담당자, 직업교육, 직업교육 정책

---

† 본 논문은 2012년 충청남도교육청 위탁 연구 과제인 '아산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의 설문 조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 교신저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ahn-jy7594@hanmail.net, 010-3483-7594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기능 인력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 작용한 특성화고는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기능 인력 양성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후 근로 조건이나 사회적 대우 등이 간과되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고재성, 2008; 이병욱, 노태천, 김춘길, 2002). 이와 더불어 특성화고가 산업 사회의 발달에 따라가지 못해 노동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취업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에 최근 정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중등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이병욱, 2012). 이에 따라 최근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고 취업률은 향상하고 있으며(교육부, 2013)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특성화고 졸업생의 채용 비율이 확대되는 등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노동시장의 채용 요구가 높아지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최근 특성화고로의 진학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오석영(2012)에 따르면 특성화고 입학생 중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고에 진학하거나 특성화고로의 진학을 조기에 결정하는 학생이 증가한 반면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은 감소하였으며, 취업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이라는 뚜렷한 목표로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은 졸업 후 상용직 취업이나 임금 및 직장만족도 등 노동시장의 성과가 높았다는 점에서(김동규, 2012) 이러한 변화가 향후 특성화고의 교육적 성과 및 사회 경제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 교육과정은 노동 시장의 교육 요구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 요구 및 취업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Finch & Crunkilton, 1999, p. 15), 이와 같은 특성화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실제적인 성과로 산출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특성화고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직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실험 실습 기자재와 같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교육 시간 및 예산의 확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만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Finch & Crunkilton, 1999, pp. 16-17).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정부 주도의 직업교육 정책이 실시된 특성화고에서 부각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교육의 주요 수요자가 될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

사 담당자의 특성화고 진학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인식을 조사·비교하여 특성화고의 운영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과 학부모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담당자의 특성화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담당자의 특성화고로의 진학, 졸업 후 진로, 산업체 채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충남 아산시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생과 그 학생들의 학부모, 그리고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중학생과 학부모 및 산업체 인사 담당자로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등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인식 현황

직업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기제로 평가되고 있다(OECD, 2010). 그 이유는 세계 경제 위기 극복, 청년 실업 방지와 고용 불안 해소, 질 높은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청소년의 직업교육 참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진로 모형과 직업 경로를 설계·지원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병욱, 2012).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국가 성장률 저하의 주요 원인인 청년실업률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2005.5.12.)’을 시작으로 한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된 정책 방안으로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2008.7)’,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0.5)', '교육 희망 사다리 구축 프로젝트(2010.9)',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2011.1)',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2011.9)'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 고졸 취업 문화 정착 및 취업률 향상을 통한 다양한 진로 경로 체제 구축,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등으로 직업교육 기회 확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병욱, 2012).

실제로 2009년 16.7%까지 하락했던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하락하고 있다(장명희, 2012).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늘어나면서 학력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재 채용 문화가 확산되어 학력 인플레 현상을 방지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며 기업의 인사 정책 변화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병욱, 2012).

또한 2011년 정부의 12개 핵심교육정책 중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관련 정책이 타 정책에 비해 정책 지지도와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정원 외, 2011),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관련된 언론 보도에서도 언론사의 보수 및 진보 성향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기사가 거의 없어 이들 정책에 의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병욱, 2012).

2. 특성화고 진학 및 졸업 후 진로 현황의 변화

앞에서 제시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과와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은 중학생의 특성화고로의 진학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특성화고 입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이유는 일반고보다 대학진학이 유리하거나 낮은 성적이 대부분이었고(이정규, 2011; 이병욱 외, 2010; 이영대, 2010; 김소예, 2009; 김상호, 2008; 이상준 외, 2008), 상당수가 일반고로의 진학을 희망하다가 특성화고에 진학하였다(이영대, 2010).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고에 진학하거나 특성화고로의 진학을 조기에 결정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오석영, 2012). 특히 성적을 이유로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생활로 인해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이상준 외, 2008) 위와 같은 최근의 특성화고 진학 이유의 변화는 특성화고 교육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은 <표 1>과 같이 2009년 16.7%까지 하락했던 취업률이 2012년 32.8%까지 상승한 반면 대학 진학률은 73.5%(2009년)에서 54.9%(2012년)까지 하락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또한 2013년 특성화고 취업률은 38.4%,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구)종합고의 직업반 등의 전체 취업률은 3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3).

이와 같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과 더불어 특성화고 진학에 관한 바람직한 변화는 학생의 특성화고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높은 동기로 인해 학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특성화고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등 직업교육 정책이 취업률 향상 등 주로 정량적 성과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라는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성화고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이병욱, 2012).

<표 1> 연도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진학률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취업률	76.6	73.3	51.3	27.7	25.9	20.2	19.0	16.7	19.2	23.4	32.8
진학률	8.3	19.2	42.0	67.6	68.6	71.5	72.9	73.5	71.1	63.7	54.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http://cesi.kedi.re.kr.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특성화고 진학과 산업체 취업이라는 진로 경로에 관한 인식을 보다 사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본 연구 목적과 관계된 이해 집단인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담당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즉,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중학교 재학생 중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3학년생과 그 학부모, 그리고 아산시 소재 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관련 산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조사 연구로 실시되었다.

1. 조사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2013년 현재 아산시 소재 중학교는 17개교이며 중학교 3학년생은 3,270명이다(충청남도교육청, 2013). 조사 대상인 중학생은 아산시 소재 전체 중학교에서 학교 당 1학급을 무선 군집 표집하였고 학부모는 표집된 해당 학급 학생의 학부모로 선정하였다.

아산시 소재 제조업 관련 산업체 수는 1,437개이며(아산시청 기업사랑 홈페이지, 2013), 이중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산업체를 제외한 884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Excel의 RAND함수를 활용한 무선 표집결과, 313개 산업체의 인사 담당자 각 1명을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우편을 통해 발송・수집하였으며 <표 2>와 같이 불성실 응답지를 제외한 중학생 484부, 학부모 458부, 산업체 81부의 설문 조사지를 분석하였다.

<표 2>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결과 (단위: 명, 개교, 개사, 부, %)

설문대상	모집단	표본 수	조사 기간	회수	분석 대상 수
산업체 인사	1,437개사	313명(313개사)	’ 13. 2. 18~26(12일간)	82(26.2)	81(25.9)
중학생	3,270명	550명(17개교)	’ 13. 3. 5~8(4일간)	491(89.3)	484(88.0)
학부모	3,270명	550명(17개교)	’ 13. 3. 5~8(4일간)	474(86.2)	458(83.3)

2. 조사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조사 도구로 사용된 설문 조사지는 <표 3>과 같이 구성하였고, 조사 영역의 ‘특성화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의 특성화고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는 동간 척도(Likert 5점 척도)를, 그 외의 모든 문항에는 명목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통계, 교차 분석, 분산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3> 설문 조사 도구 영역과 문항 수

조사 영역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고교 진학에 대한 인식	2	2	0
특성화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4	4	4
특성화고 진학, 졸업 후 진로, 산업체 채용에 대한 인식	10	10	2
일반적 현황	5	5	9
계	21	21	15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단위: 명, %)

중학생(N=484)			학부모(N=458)			산업체 인사(N=81)		
성별	남자	226(46.7)	연령	30대	38(8.3)	산업체 규모	중소기업	67(82.7)
	여자	256(52.9)		40대	365(79.7)		중견기업	6(7.4)
	결측	2(0.4)		50대	50(10.9)		대기업	6(7.4)
학교성적	상	90(18.6)		60대 이상	3(0.7)		기타	1(1.2)
	중	273(56.4)		결측	2(0.4)		결측	1(1.2)
	하	118(24.4)	자녀의 학교성적	상	105(22.9)	인사담당자 연령	20대	7(8.6)
	결측	3(0.6)		중	244(53.3)		30대	37(45.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30(6.2)		하	107(23.4)		40대	25(30.9)
	중	401(82.9)		결측	2(0.4)		50대	10(12.3)
	하	51(10.5)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5(3.3)		60대이상	2(2.5)
	결측	2(0.4)		중	361(78.8)	인사담당자 직위	사원	14(17.3)
				하	79(17.2)		대리급	17(21.0)
				결측	3(0.7)		과장급	24(29.6)
							부장급	12(14.8)
							이사급	12(14.8)
							결측	2(2.5)
						인사담당자 경력	5년 미만	24(29.6)
							5~10년	20(24.7)
							10~15년	15(18.5)
							15~20년	10(12.3)
							20~25년	7(8.6)
							25~30년	4(4.9)
							30년 이상	1(1.2)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표 5> 중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N=942)

(단위: 명, %)

구분	일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기타	합계
중학생	306(63.5)	48(10.0)	22(4.6)	20(4.1)	71(14.7)	12(2.5)	3(0.6)	482(100.0)
학부모	206(45.3)	63(13.8)	48(10.5)	28(6.2)	74(16.3)	34(7.5)	2(0.4)	455(100.0)
합계	512(54.6)	111(11.8)	70(7.5)	48(5.1)	145(15.5)	46(4.9)	5(0.5)	937(100.0)

주. 1) 결측: 중학생=2, 학부모=3, 2) x^2=42.590, df=6, p=.000.

<표 5>와 같이 중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는 일반고(54.6%), 특수목적고(15.5%), 특성화고(11.8%), 마이스터고(7.5%)의 순이었고, 중학생은 학부모에 비해 일반고 진학을 높게 희망하는 반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은 낮게 희망하였다. 대체로 중학생과 학부모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 교육기관보다는 일반고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중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 요인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N=942)

(단위: 명, %)

구분	학업 성적	적성이나 소질	선생님의 추천	나(학부모)의 추천	장래 희망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	기타	합계
중학생	184(38.1)	147(30.4)	5(1.0)	19(3.9)	90(18.6)	26(5.4)	12(2.5)	483(100.0)
학부모	116(25.3)	232(50.7)	8(1.7)	10(2.2)	63(13.8)	26(5.7)	3(0.7)	458(100.0)
합계	300(31.9)	379(40.3)	13(1.4)	29(3.1)	153(16.3)	52(5.5)	15(1.6)	941(100.0)

주. 1) 결측: 중학생=1, 2) x^2=47.496, df=6, p=.000.

<표 6>과 같이 중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 요인은 적성이나 소질(40.3%), 학업 성적(31.9%), 장래 희망(16.3%),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5.5%)의 순이었다. 그리고 중학생은 학업 성적(38.1%)을 가장 고려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는 적성이나 소질(50.7%)을 가장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고교 선택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교차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진학할 고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성적, 취업, 적성, 특별한 이유 없음, 통학 용이성, 학교 평판 등이 주요 이유가 된다는 이영대(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2. 특성화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조사 결과

<표 7>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의 특성화고 목적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N=1,023)

(단위: 명, %)

구분	학생의 소질·적성 향상	취업	동일계 대학 진학	취업과 진학 동시 추구	기타	합계
중학생	216(44.8)	127(26.3)	11(2.3)	122(25.3)	6(1.2)	482(100.0)
학부모	202(44.1)	115(25.1)	36(7.9)	104(22.7)	1(0.2)	458(100.0)
산업체	35(43.2)	17(21.0)	8(9.9)	20(24.7)	1(1.2)	81(100.0)
합계	453(44.4)	259(25.4)	55(5.4)	246(24.1)	8(0.8)	1,021(100.0)

주. 결측: 중학생=2.

<표 7>과 같이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가 인식하는 특성화고의 목적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향상시키는 교육(44.4%), 취업을 위한 교육(25.4%),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24.1%), 동일계 대학 진학을 위한 사전 기초 교육(5.4%)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체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특성화고의 본연의 목적(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3)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이 특성화고의 주요 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의 특성화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분석 결과(복수 응답, N=1,023)

(단위: 명, %)

구분	적성과 소질을 일찍 살릴 수 있음	취업이 잘됨	졸업 후 자립이 빠름	대학 진학이 용이함	학교 생활이 즐거움	우수한 기술 습득	기타	전체응답자수 (BASE)
중학생	271(28.3)	264(27.6)	122(12.8)	71(7.4)	61(6.4)	159(16.6)	8(0.8)	956(100.0)
학부모	327(36.8)	204(23.0)	163(18.4)	54(6.1)	33(3.7)	103(11.6)	4(0.5)	888(100.0)
산업체	54(33.8)	39(24.4)	40(25.0)	4(2.5)	2(1.3)	21(13.1)	0(0.0)	160(100.0)
합계	652(32.5)	507(25.3)	325(16.2)	129(6.4)	96(4.8)	283(14.1)	12(0.6)	2,004(100.0)

<표 8>과 같이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가 인식하는 특성화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적성과 소질을 일찍 살릴 수 있음(32.5%), 취업이 잘됨(25.3%), 졸업 후 자립이 빠름(16.2%), 우수한 기술 습득(14.1%)의 순이었으며, 응답자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대체로 <표 7>의 특성화고의 목적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9>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의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분석 결과(복수 응답, N=1,023)

(단위: 명, %)

구분	대학 진학이 불리함	교육 시설 및 환경이 나쁨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진학함	우수 산업체에 대한 취업 기회 적음	취업 후 승진이나 임금 등에 불이익 있음	졸업 후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받음	기타	전체응답자수 (BASE)
중학생	163(17.6)	99(10.7)	218(23.5)	85(9.2)	146(15.7)	193(20.8)	24(2.6)	928(100.0)
학부모	150(17.2)	94(10.8)	154(17.6)	62(7.1)	203(23.2)	200(22.9)	11(1.3)	874(100.0)
산업체	32(20.1)	19(11.9)	44(27.7)	10(6.3)	23(14.5)	29(18.2)	2(1.3)	159(100.0)
합계	345(17.6)	212(10.8)	416(21.2)	157(8.0)	372(19.0)	422(21.5)	37(1.9)	1,961(100.0)

<표 9>와 같이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가 인식하는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졸업 후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받음(21.5%),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진학함(21.2%), 취업 후 승진이나 임금 등에 불이익 있음(19.0%), 대학 진학이 불리함(17.6%), 교육 시설 및 환경이 나쁨(10.8%)의 순이었으며, 응답자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대체로 고학력에 대한 동경, 기능인에 대한 멸시, 직업 수준에 따른 불평등,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화 등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업 수준에 따른 경제적 그리고 지위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의 특성화고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 검정(N=1,023)

(단위: 명)

항목	응답자	N	M	SD	F	Games-Howell
전공분야 기초 능력 함양	중학생(A)	484	3.75	.891	538.273***	A>B*** C>B***
	학부모(B)	447	2.12	.693		
	산업체(C)	80	3.85	.658		
	합계	1011	3.04	1.138		
전공분야 실무 능력 함양	중학생(A)	484	3.69	.859	428.691***	A>B*** C>B***
	학부모(B)	447	2.21	.713		
	산업체(C)	80	3.73	.900		
	합계	1011	3.04	1.089		
직업 기초 능력 함양	중학생(A)	484	3.58	.891	279.680***	A>B*** A>C** C>B***
	학부모(B)	447	2.31	.758		
	산업체(C)	80	3.29	.799		
	합계	1011	3.00	1.031		
창의 인재 육성	중학생(A)	484	3.56	.897	231.315***	A>B*** A>C* C>B***
	학부모(B)	447	2.38	.806		
	산업체(C)	80	3.31	.722		
	합계	1011	3.02	1.020		
바른 인성 및 태도 함양	중학생(A)	484	3.30	.917	68.428***	A>B*** A>C* C>B***
	학부모(B)	447	2.62	.880		
	산업체(C)	80	3.04	.770		
	합계	1011	2.98	.947		

주. 1)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2) 결측: 학부모=11, 산업체=1, *p<.05, **p<.01, ***p<.001.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의 특성화고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특성화고 교육이 5가지 항목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바른 인성 및 태도 함양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과 산업체 인사가 학부모보다 5가지 항목에 대한 특성화고 교육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과 산업체 인사에 비해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교육 효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여 특성화고 교육 효과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특성화고 교육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중학생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점은 중학생이 진학할 고교로 특성화고를 선택할 때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는 점에서(이정규, 2011; 빙하나, 2011; 김소예, 2009; 김상호, 2008) 특성화고에 진학

하고자 하는 중학생의 진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특성화고로의 진학, 졸업 후 진로, 산업체 채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표 11> 중학생과 학부모의 특성화고 진학 여부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N=942)

(단위: 명, %)

구분	반드시 진학	진학 예정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진학 예정	진학하지 않음	합계
중학생	42(8.7)	133(27.7)	170(35.3)	136(28.3)	481(100.0)
학부모	38(8.3)	116(25.3)	198(43.2)	106(23.1)	458(100.0)
합계	80(8.5)	249(26.5)	368(39.2)	242(25.8)	939(100.0)

주. 결측: 중학생=3, 학부모=0.

<표 11>과 같이 아산시에 특성화고가 설립 시 특성화고 진학 의사에 대해 중학생과 학부모는 반드시 진학(8.5%), 진학 예정(26.5%),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진학 예정(39.2%) 등으로 인식하여 중학생과 학부모의 35.0%가 진학 의사를 나타냈고 74.2%가 진학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특성화고가 없는 상황에서의 중학생과 학부모의 특성화고 진학 희망(11.8%)과 큰 차이를 보이므로 아산지역의 중학생과 학부모가 대체로 특성화고 설립을 희망하는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단 아산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도 동일한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등 단계 교육 기관에서 특성화고 등 직업 교육 기관의 비율을 유지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직업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12> 중학생·학부모의 특성화고 진학 이유 분석 결과(복수 응답, N=697)

(단위: 명, %)

구분	적성과 소질을 일찍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수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	성적을 고려하여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에 유리해서	기타	전체응답자수 (BASE)
중학생	206(33.3)	156(25.2)	115(18.6)	65(10.5)	21(3.4)	48(7.8)	7(1.1)	618(100.0)
학부모	263(41.1)	168(26.2)	52(8.1)	79(12.3)	13(2.0)	57(8.9)	8(1.2)	640(100.0)
합계	469(37.3)	324(25.8)	167(13.3)	144(11.4)	34(2.7)	105(8.3)	15(1.2)	1,258(100.0)

<표 12>와 같이 중학생과 학부모의 특성화고 진학(반드시 진학, 진학 예정,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진학 예정) 이유 중에서 특성화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인 적성과 소질을 일찍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37.3%), 우수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25.8%),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13.3%) 등이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특성화고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이유인 성적을 고려하여(11.4%), 대학 진학에 유리해서(8.3%), 가정 형편 때문에(2.7%) 등은 22.4%를 차지하였다. 과거에는 대학 진학에 유리하거나 성적 때문에 특성화고에 진학한 경우가 많았으나(이정규, 2011; 이병욱 외, 2010; 이영

대, 2010; 김소예, 2009; 김상호, 2008; 이상준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바람직한 목적으로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특성화고는 진학 예정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기술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중학교에서는 이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부합하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도록 진로교육에 입각한 체계적인 입학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표 13> 중학생·학부모의 특성화고 미진학 이유 분석 결과(복수 응답, N=242)

(단위: 명, %)

구분	적성과 소질에 맞지 않아서	특성화고에 진학하기에는 성적이 맞지 않아서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려워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특성화고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응답자수 (BASE)
중학생	77(33.2)	19(8.2)	14(6.0)	29(12.5)	11(4.7)	48(20.7)	25(10.8)	9(3.9)	232(100.0)
학부모	43(23.2)	7(3.8)	14(7.6)	36(19.5)	12(6.5)	31(16.8)	39(21.1)	3(1.6)	185(100.0)
합계	120(28.8)	26(6.2)	28(6.7)	65(15.6)	23(5.5)	79(18.9)	64(15.3)	12(2.9)	417(100.0)

<표 13>과 같이 중학생과 학부모의 특성화고 미진학 이유는 적성과 소질에 맞지 않아서(28.8%), 특성화고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18.9%),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워서(15.6%),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15.3%)의 순이었다. 특히, '특성화고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특성화고의 부재로 인한 특성화고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아산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학생이 특성화고의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취업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워서' 라는 응답은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 정책 속에서도 대학 진학이라는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은 특성화고 졸업자가 주로 담당하는 기능 위주의 직무 특성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요구에 입각하여 특성화고가 기능 인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표 14> 중학생·학부모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 특성화고 진학 이유 분석 결과(복수 응답, N=368)

(단위: 명, %)

구분	나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과가 있다면	통학하기 쉬운 위치에 특성화고가 설립된다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좋다면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개선된다면	기타	전체응답자수 (BASE)
중학생	132(39.9)	41(12.4)	8(2.4)	46(13.9)	52(15.7)	30(9.1)	17(5.1)	5(1.5)	331(100.0)
학부모	150(40.5)	25(6.8)	23(6.2)	70(18.9)	40(10.8)	33(8.9)	28(7.6)	1(0.3)	370(100.0)
합계	282(40.2)	66(9.4)	31(4.4)	116(16.5)	92(13.1)	63(9.0)	45(6.4)	6(0.9)	701(100.0)

<표 14>와 같이 중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 특성화고 진학 이유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과가 있다면(40.2%), 교육 시설 및 교육 환경이 좋다면(16.5%),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면(13.1%), 통학하기 쉬운 위치에 특성화가 설립된다면(9.4%),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9.0%)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의 운영에 있어서 중학생의 요구 및 선호에 부합하는 학과의 개설 및 개편과 진로 안내 및 실현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특성화고의 지리적 위치는 비교적 통학 거리가 먼 지방도시 및 읍면 지역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 특성화고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5> 중학생・학부모의 특성화고 졸업 후의 예상 진로 분석 결과(N=697)

(단위: 명, %)

구분	취업	대학 진학	기타	합계
중학생	169(51.1)	149(45.0)	13(3.9)	331(100.0)
학부모	153(43.8)	187(53.6)	9(2.6)	349(100.0)
합계	322(47.4)	336(49.4)	22(3.2)	680(100.0)

주. 결측: 중학생=14, 학부모=3.

<표 16> 중학생・학부모의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분석 결과(N=322)

(단위: 명, %)

구분	사회 진출을 빨리 하여 성공하고 싶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타	합계
중학생	64(38.3)	55(32.9)	15(9.0)	31(18.6)	2(1.2)	167(100.0)
학부모	53(34.9)	60(39.5)	8(5.3)	27(17.8)	4(2.6)	152(100.0)
합계	117(36.7)	115(36.1)	23(7.2)	58(18.2)	6(1.9)	319(100.0)

주. 결측: 중학생=2, 학부모=1.

<표 17> 중학생・학부모의 특성화고 졸업 후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 분석 결과(N=336)

(단위: 명, %)

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부모님(주변)의 권유 때문에	전공에 대한 심화교육을 받기(시키기) 위해서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때문에	기타	합계
중학생	20(13.8)	7(4.8)	81(55.9)	34(23.4)	3(2.1)	145(100.0)
학부모	6(3.3)	3(1.6)	124(67.8)	50(27.3)	0(0.0)	183(100.0)
합계	26(7.9)	10(3.0)	205(62.5)	84(25.6)	3(0.9)	328(100.0)

주. 결측: 중학생=4, 학부모=4.

<표 15>와 같이 특성화고 진학 가능성(반드시 진학, 진학 예정,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진학 예정)을 나타낸 중학생 및 학부모의 특성화고 졸업 후의 진로 희망은 취업(47.4%)과 진학(49.4%)이 비슷하였다. <표 16>과 같이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체로 사회 진출을 빨리하여 성공하고 싶고(36.7%)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산업체 현장 실습

에 참여한 이유로 사회 경험 욕구와 가정 경제의 어려움 및 경제적 욕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안재영, 2012),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 경험 욕구 및 학업에 대한 열의 부족 등으로 취업을 결정하였다는 점(조용 외, 2011; 조군제, 김선진, 2009)과 비교해 볼 때,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 욕구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과잉 학력에 따른 낭비를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7>과 같이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체로 전공에 대한 심화교육(62.5%)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때문(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과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비슷하고 조기 사회 진출로 성공하기 위한 취업 이유와 전공에 대한 심화 교육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으로 미루어 볼 때, 중학생과 학부모는 취업과 대학 진학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통해 체계적인 후학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 중학생・학부모・산업체의 채용 기준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N=402)

(단위: 명, %)

구분	학업 성적	전공(학과)	직무 수행 능력	인성	학교의 추천	기타	합계
중학생	25(18.8)	39(29.3)	47(35.3)	17(12.8)	4(3.0)	1(0.8)	133(100.0)
학부모	25(20.2)	26(21.0)	50(40.3)	13(10.5)	8(6.5)	2(1.6)	124(100.0)
산업체	0(0.0)	13(16.2)	41(51.2)	23(28.8)	2(2.5)	1(1.2)	80(100.0)
합계	50(14.8)	78(23.1)	138(40.9)	53(15.7)	14(4.2)	4(1.2)	337(100.0)

주. 1) 결측: 중학생=36, 학부모=29, 산업체=1, 2) x^2=37.298, df=10, p=.000.

<표 18>과 같이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중학생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채용 기준은 직무 수행 능력(중학생: 35.3%, 학부모: 40.3%), 전공(중학생: 29.3%, 학부모: 21.0%), 학업 성적(중학생: 18.8%, 학부모: 20.2%)의 순이었으나 산업체 인사는 직무 수행 능력(51.2%), 인성(28.8%), 전공(16.2%)의 순으로 중학생과 학부모와 달리 인성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인사가 전공이나 학업 성적보다 인성을 중요한 채용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특성화고 교육이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므로(안재영, 이병욱, 2013a) 인성을 갖춘 학생을 채용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으로 성장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학교 기반의 직업교육 체제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특성화고 교육은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안재영, 이병욱, 2013b) 일 기반 학습을 통하여 특성화고 교육의 현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9> 중학생・학부모의 특성화고 희망 학과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복수 응답, N=697)

(단위: 명, %)

구분	자동차·기계	전기·전자	화공	건축·토목	상업	가정·가사	농업·축산	기타	전체응답자수 (BASE)
중학생	103(15.6)	104(15.7)	15(2.3)	63(9.5)	108(16.3)	184(27.8)	30(4.5)	54(8.2)	661(100.0)
학부모	128(19.6)	138(21.1)	24(3.7)	55(8.4)	129(19.8)	123(18.8)	22(3.4)	34(5.2)	653(100.0)
합계	231(17.6)	242(18.4)	39(3.0)	118(9.0)	237(18.0)	307(23.4)	52(4.0)	88(6.7)	1,314(100.0)

<표 20> 중학생・학부모의 특성화고 학과 선택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복수 응답, N=697)

(단위: 명, %)

구분	적성과 소질	취업에 유리	대학 진학에 유리	주변 권유	학업 성적	미래 유망	아산시 소재 기업 종류	기타	전체응답자수 (BASE)
중학생	271(39.1)	135(19.5)	55(7.9)	12(1.7)	64(9.2)	138(19.9)	13(1.9)	5(0.7)	693(100.0)
학부모	269(39.3)	125(18.2)	60(8.8)	7(1.0)	33(4.8)	161(23.5)	30(4.4)	0(0.0)	685(100.0)
합계	540(39.2)	260(18.9)	115(8.3)	19(1.4)	97(7.0)	299(21.7)	43(3.1)	5(0.4)	1,378(100.0)

<표 19>와 같이 특성화고 진학 가능성(반드시 진학, 진학 예정,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진학 예정)을 나타낸 중학생 및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과로는 공업 계열 학과가 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가정・가사(23.4%) 및 상업(18.0%) 관련 학과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 요구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과 같이 학과 선택 시 고려할 요인은 적성과 소질(39.2%), 미래 유망(21.7%), 취업에 유리(18.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성화고 및 학과 선택에 있어서 성적이나 주변의 권유 등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보다 취업이나 대학 진학, 직업 및 취업 전망 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선택한 학생의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상용직 취업, 임금, 직장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김동규, 2012), <표 12>와 <표 20>의 결과로 볼 때 향후 특성화고 입학생의 졸업 후 취업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직업 교육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요구 및 선호도에 부합하고 졸업 후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Finch & Crunkilton, 1999), 위와 같은 결과는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 교원 수와 노동시장의 수요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 요구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유망하면서 현실적인 고용성도 담보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고, 학생의 적성 및 소질 등의 개인 특성을 부합하는 학과에 진학하도록 체계적인 특성화고 입학 지도가 요구된다.

<표 21> 산업체의 특성화고 학생 채용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N=81)

(단위: 명, %)

학생 채용 여부	반드시 채용	채용 예정	상황과 여건에 따라 채용 예정	채용 안함
	14(17.3)	25(30.9)	41(50.6)	1(1.2)

반드시 채용, 채용 예정, 상황과 여건에 따른 채용 이유*	고졸 수준의 인력이 필요해서	학생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어서	학생을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시키려고	저렴한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어서	학생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타
	31(20.7)	38(25.3)	43(28.7)	24(16.0)	13(8.7)	1(0.7)
상황과 여건에 따른 학생 채용 이유*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회사 경영 상태가 호전되면	학생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면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갖추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학생이 필요하면	기타
	26(33.3)	3(3.8)	27(34.6)	9(11.5)	12(15.4)	1(1.3)

* 복수 응답

<표 21>과 같이 산업체 인사는 특성화고 학생의 채용 가능성(98.8%)이 높을 것으로 응답하였고, 채용 이유는 학생을 산업체의 인재로 성장시키려고(28.7%), 학생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어서(25.3%), 고졸 수준의 인력이 필요해서(20.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상황과 여건에 따른 학생 채용 이유에 대해 인력이 필요하거나(33.3%) 학생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면(34.6%) 채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은 산업체의 인력 수요와 학생의 직무 수행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산업체의 인력 수요는 특성화고의 영향력 밖의 영역이므로 특성화고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등 직업교육 정책도 취업률 위주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학생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다 내실화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중학생과 학부모는 대체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 교육 기관보다는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교 선택 요인으로는 대체로 적성・소질과 학업 성적을 고려하였으며 중학생은 학업 성적을, 학부모는 적성・소질을 가장 고려하였다.

둘째, 특성화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학부모・산업체 인사는 특성화고의 목적을 학생의 소질・적성 향상 및 취업이라고 인식하였다. 특성화고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소질・적성을 일찍 살림, 취업이 잘됨, 졸업 후 자립이 빠름, 우수한 기술 습득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의 진학, 승진・임금 등에 대한 불이익, 대학 진학에 불리 등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교육이 전공분야 기초・실무 능력 향상, 직업 기초 능력 함양, 창의 인재 육성, 바른 인성 및 태도 함양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중학생과 산업체 인사가 학부모보다 특성화고 교육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특성화고 교육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낮은 인지는 중학생의 특성화고로의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학생과 학부모가 특성화고 교육에 대한 표면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성화고 입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특성화고로의 진학, 졸업 후 진로, 산업체 채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수의 중학생과 학부모가 아산시에 특성화고가 설립 시 특성화고 진학 의사를 나타냈고, 진학 이유로 적성・소질을 일찍 살림, 우수한 기술 습득, 조기 취업 희망 등 특성화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미진학 이유로는 적성・소질에 맞지 않음,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부족, 대학 진학에 불리,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이, 상황과 여건에 따른 특성화고 진학 이유로는 적성・소질에 맞는 학과의 존재, 교육 시설 및 환경의 개선, 좋은 회사로의 취업, 통학하기 쉬운 위치의 특성화고,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개선된다면 중학생의 특성화고로의 진학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특성화고는 중학생의 다양한 적성・소질에 부합하는 학과 개편 및 개설, 중학생이 요구하는 특성화고 교육과정 및 교육 성과와 관련된 정보 제공,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등 진로의 다양성 추구, 질 높은 취업 제공 등을 보완하고 특히 특성화고 신설 시 용이한 통학을 위한 위치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학생과 학부모는 특성화고 졸업 후의 예상 진로로 취업과 대학 진학을 비슷하게 선호하여 불과 몇 년 전의 대학 진학 중심의 진로 희망 비율보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이유는 대체로 사회 진출을 빨리하여 성공하고 싶거나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 진학 이유는 대체로 전공에 대한 심화교육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학생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채용 기준은 직무 수행 능력, 전공, 학업 성적의 순이었으나 산업체 인사는 직무 수행 능력, 인성, 전공의 순이었다. 특히 산업체 인사가 전공이나 학업 성적보다 인성을 중요한 채용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특성화고 교육이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산업체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기 위하여 일 기반 학습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과 학부모는 공업 계열 학과, 가정・가사 및 상업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으며 적성・소질, 미래 유망, 취업에 유리함 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고자 하였으므로 특성화고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과를 개설・개편하고 특성화고 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비전, 학과 교육과정 등 학교 및 학과 선

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 지도에 입각한 특성화고 입학이 이루어지도록 특성화고 입학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 인사의 특성화고 학생의 채용 이유는 학생을 산업체의 인재로 성장, 학생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춤, 고졸 수준의 인력이 필요함 등이었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채용할 예정인 산업체 인사는 향후 인력이 필요하거나 학생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다면 채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이 산업체의 인력 수요와 학생의 직무 수행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체의 인력 수요는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결과이므로, 취업률 위주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특성화고가 학생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특성화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과 및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진로 지도에 입각한 특성화고 입학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 중심 교육 체계에 일 기반 현장 학습을 구축하여 학생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실질적인 경력 발달이 가능하도록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정비하여 추진하고 취업률 등 정량적 평가보다는 특성화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특성화고 관련 기능 인력이 제대로 평가 및 대우받을 수 있는 각 부처의 협력적 지원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고재성(2008). **전문계 고교 출신 대학 진학자의 진로현황 및 시사점.** e-고용이슈, 제2008-16호,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2012). 특성화고 선택의 자발성이 고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1**(3), 25-42.

김상호(2008).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관한 비교연구 -상업정보 계열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예(200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선택 만족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 외(2011). **현 정부 핵심교육정책 진단 및 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1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3년 졸업생 취업률 결과 발표.** 2013년 5월 15일자 보도자료.

빙하나(2011). **광주광역시의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재영(2012). **현장 실습 요인이 특성화 고교생의 취업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재영, 이병욱(2013a).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한 현장 실습 효과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8**(1), 145-161.

안재영, 이병욱(2013b).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직장 생활 만족도와 현장 실습 요인간의 관계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3**(1), 93-110.

오석영(2012).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요인 분석: 서울지역 진로결정 집단별 비교. **직업교육연구, 31**(3), 135-151.

이병욱(2012). MB정부의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 성과와 차기 정부의 직업교육 방향. **2012 한국직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9-31).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병욱 외(2010).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이병욱, 노태천, 김춘길(2002). 공업계 고등학교 맥락에서의 직업교육 발전 방안-공고 교육의 현안문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7**(2), 53-66.

이상준 외(2008).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2010). 중학생의 고교 진학유형별 고교 졸업 후 진로비교. **제 5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정규(2011). **특성화 고등학교별 진로선택과 진로지도의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명희(2012). **고졸 취업 촉진 정책과 추진 경과와 방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주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간담회 자료.

조군제, 김선진(2009). 고등학교 상업계 학생의 진로의식을 통한 진로지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54,** 1-22.

조용 외(2011). **특성화고 진로이력분석 연구 2011.** 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3).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Finch, C. R. & Crunkilton, J. R. (1999). *Curriculum Development in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5th ed). MA: Allyn & Bacon.

OECD(2010). *Learning for jobs.* Paris: OECD.

아산시청 기업사랑 홈페이지(2013). http://giup.asan.go.kr.

충청남도교육청(2013). http://www.cne.go.kr.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

투고일자 : 2013. 8.14 수정일자 : 2013. 9.14 게재확정일 : 2013. 9. 23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Awar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Parents, and Human Resources Directors in Industrial Institutions about Admission into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Career after Graduating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Byung-Wook Lee*, Jae-Yeong Ahn**, Chan-Joo Lee***, Sang-Hyun Lee****

This study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about operation direc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SHS) by researching awar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MSS), school parents (SP), human resources directors in industrial institutions (HRDII) who will be the main users of SHS education, about entering SHS and career after graduating from SHS. Seniors of middle school, SP and HRDII in Asan, Chungnam were the subject of this survey research. The summary of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MSS and SP usually hoped to enter general high schools rather than vocational education schools such as SHS, meister high schools, and MSS considered school records and SP considered aptitude and talent for the factors to choose high school.

Second, MSS, SP, and HRDII recognized purposes of SHS as improvement of talent and aptitude, and getting a job. As for positive images of SHS, they recognized it as applying talent and aptitude to life early, getting good jobs easily, fast independence after graduation, and learning excellent technologies, and as for negative images of SHS, they recognized it as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students with bad school records enter them, disadvantages about promotion and wages, and being unfavorable for entering universities. They also recognized education of SHS as being effective for improvement of basic and executive ability and key competency, development of creative human resources, and improvement of right personality and courteous manners.

Third, many MSS and SP showed intention to enter SHS if it is established in Asan. They wished to enter SHS because they would like to apply their aptitude and talent to life early, learn excellent skill, and hope for early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the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ence: Teacher, Chungnam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 ahn-jy7594@hanmail.net

*** Yangpyong Electronics Science High School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id not wish to enter SHS because it was not suited for their aptitude and talent, awareness about SHS is low, it is unfavorable to enter universities, and there were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They also similarly hoped for getting jobs and entering universities after graduating from SHS. And the reason they wanted to get a job was usually because they want to be successful by advancing into society early, or because it is still hard to get a job even after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they want to enter university is because is usually in-depth education about major and social discrimination about level of education.

The ability to perform duties forms the greatest part of the employment standard that MSS, SP, and HRDII aware. MSS and SP usually hoped for industrial, home economics and housework and commercial majors in SHS, and considered aptitude and talent, the promising future, and being favorable for employment for choosing major. The reason HRDII hire SHS student was to develop student into talent of industrial institution, ability of student, and need for manpower with high school graduation level, and there were also partial answer that they can hire SHS student if they have ability to perform duties.

The proposals about operation direction of SHS according to the results above are as follow:

SHS should diversify major and curriculum to meet various requirements of student and parents, establish SHS admission system based on career guidance, and improve student's ability to perform duties by establishing work-based learning.

The Government should organize work-to-school policy to enable practical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from SHS, and promote relevant policy to reinforcing SHS education rather than quantitative evaluation such as employment rate, and cooperative support from each government departments is required to make manpower with skill related to SHS to get proper evaluation and treatment.

Key words : Specialized High School,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Parents, Human Resources Directors in Industrial Institutions,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Policy